

✳ 제지업계

내수는 침체 수출은 소폭 증가



2003년도 제지업계는 내수는 판지류, 수출은 종이류가 선전한 가운데 전반적으로는 지난해 보다 힘겨운 한해였던 것으로 판단된다.

한국제지공업연합회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까지의 인쇄용지의 생산량 및 내수 판매량은 각각 169만8077M/T과 91만4228M/T에 그쳐, 지난해 동기 대비 99.6%, 95.2%에 불과했다. 반면에 수출물량은 74만3553M/T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%를 기록했다. 전체 종이의 수출량도 105만5051M/T을 달성,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3.7%의 높은 실적을 올렸다.

판지류는 수출보다는 내수에서 실적이 좋았다. 생산량과 내수 판매량이 365만8494M/T과 275만2534M/T의 실적을 보여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7.2%, 106.7%의 좋은 실적을 올렸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가 어려웠다는 판단의 주된 근거는 생산·출하실적의 하락 때문이라기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에서 찾을 수 있다.

즉, 이라크 전쟁 후 회복하리라고 예상됐던 세계 및 국내 경기의 지속되는 침체와 이에 따른 과열 가격경쟁, 제지 원재료 비중의 70~80%에 육박하는 펄프 가격의 상향 기조 등에 의한 제지업계의 수익률 저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

다. 더구나 이는 장기간의 펄프가격 안정화로 최대의 호황을 누렸던 지난해의 상황과 상반되는 것이어서 기업들의 충격 폭은 더 컸다.

또한 올 한해 제지업계에는 몇 가지 중요한 사건도 있었다. 지난 8월6일 중국 상무부는 한국산 아트지에 대해 4~51%의 반덤핑 관세율을 확정 발표했다. 이에 따라 국내 제지업체들은 향후 5년간 중국 수출시 기준에 부과하던 7%의 관세 외에 무림·신무림제지 4%, 한국·신호제지 9%, 한솔제지 16%, 계성·남한·풍만제지 31%, 기타 51%의 반덤핑 관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.

한솔제지는 약 65%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특수지 전문생산업체 한솔파텍의 특수용지 사업에 관련된 총 자산 1969억원 어치를 양수하고 차입금 1980억원을 승계했다. 신무림제지는 지난7월 국내 인쇄용지 업체로서는 처음으로 중국 첸밍제지그룹과 현지 인쇄용지공장 합작투자를 합의했다. 1999년부터 법정관리에 들어간 동해펄프의 주간사로 삼일회계법인 한국산업은행 M&A컨소시엄이 선정됨으로써 매각작업이 본격화됐다. 이 외에도 계성제지 자회사인 남한제지(주)의 정읍공장 특수지 시설이 가동에 들어갔으며 신호제지의 워크아웃 조기졸업설이 지속 제기됐다.

〈조갑준 기자〉